

치과보험 공부 열심히 해라

김 두 용 / 해온치과

치과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치과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생존의 시대에 접어든 2023년 치과계에 서 치과보험 청구는 치과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런 보험청구를 쉽게 도와주는 좋은 청구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예전처럼 보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들이 어느정도는 미리 청구착오에 대해 경고해 주어, 추후 삭감 당하지 않도록 알려준다. 프로그램들의 도움으로 치과보험 청구는 점점 편리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는 보험청구도 AI가 탑재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고, 심평원의 AI가 알아서 삭감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 분명히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보험청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조건이 있으며, 이런점 들을 프로그램이 모든것을 알아서 반영 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보험청구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 면, 모르는 사이에 청구를 놓칠수도 있으며, 뒤늦게 삭감당할수도 있다. 또한 정확한 치과 보험청구 지식 을 토대로 진료해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아쉽지만, 예전에 비해 잦은 이직으로 치과구성원이 더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치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치과보험 청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 어야, 구성원이 자주 바뀌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아무리 보험 청구 프로그램이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정교해지고, 정확해져도 아직은 모든것을 믿고 맡길 수는 없다. 아직은 치과보험 공부 열심히 해라.

오늘은 치과보험 청구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보험 지식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한양대학교병원 보철과 수련
- * 한양대학교 의학석사/의학박사
- * 한양대학교병원 외래교수
- * 현,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해온치과의원 원장